



코스피	1937.75 (0.00)	코스닥	590.04 (0.00)
금리 (무기·3년)	1.19 (+0.02)	환율 (원·달러)	1210.50 (+1.30) (9일)



**[경제 종합]**  
위기의 K-바이오  
진짜 바이오 감별법  
04



대학 시간강사 단체가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전국 대학에서 시간강사 구조조정이 잇따르고 있다며 강사 해고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 ‘강사법 시행’ 후폭풍 현실화 해고된 시간강사에 혈세 280억원 투입

### 정책실패, 세금으로 때우나

대학 시간강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강사법이 8월 시행되면서 그 후폭풍이 현실화되고 있다. 지난 10년간 등록금 동결이나 인하로 재정난이 극에 달한 대학들이 강사들을 대거 해고하면서, 대학의 대형 강의가 증가하는 등 우리 고등교육의 질 하락이 우려되고 있다. 해고된 시간강사를 지원하기 위해 결국 혈세가 투입된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지난 2일 추가경정예산 심의·의결됨에 따라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 2000과제를 추가 선정해 280억원을 투입, 해고된 전직 강사 2000명에게 연구비 지원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 공고는 12일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 누리집에 실리고, 지원을 받고자 하는 강사는 8월 21일 14시부터 9월 16일 18시까지 신청하면 된다.

이번 지원은 시간강사처우개선을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강사법)이 이달 1일부터 발표됨에 따라 해고되거나 새 강좌를 구하지 못한 인문·사회분야(예술·체육학 포함) 박사급 강사가 대상이다. 과제당 1년간 연구비 1300만원(기관지원금 100만원 별도)이 지원된다.

2011년부터 시작된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은 매년 약 1200~1700과제로 지원됐으나, 올해는 2000과제가 추가됨에 따라 총 3282과제로 예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교육부는 내년부터는 학문후속세대 연구지원사업을 확대 개편하고, 이공분야 비전임 박사급 연구지원사업을 확대하는 등 박사급 비전임 연구자 지원을 확대하기로 해 추가 재원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대학 강사 해고는 강사법이 논의된 2011년부터 예고돼 왔다. 강사법은 2011년 개정됐지만 강사 해고 사태 등이 우려되면서 그동안 4차례나 시행이 유예되기도 했다.

강사법은 강사에게 교원의 지위를 부여하고, 방학 중에도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며, 임용 기간도 3년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어 법 시행시 대학들이 감당하기 힘들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었다.

대학교육연구소에 따르면, 시간강사 수는 2011년 6만226명에서 2018년 3만7829명으로 7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대학의 전체 교원 중 시간강사 비율도 45.3%에서 29.9%로 감소했다. 41개 사립대학은 시간강사 감소율이 50%를 넘었고, 12개 사립대의 경우 강사 감소율은 70%에 달했다.

특히 강사법이 시행되는 올해 2학기 전에 강사 해고 사례가 집중됐다. ‘강사제도개선과 대학연구교육공공성 향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강사공대위)에 따르면, 올해 1학기에만 1만5000명 이상의 강사가 해고됐고, 6000개 이상의 강좌가 폐강됐다. 해고된 강사 자리는 강사법이 적용되지 않는 초빙·겸임교수로 대체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학들은 10명~20명 내외의 소규모 강의를 줄이고 50명 이상 대규모 강의를 늘리거나 개설과목과 졸업필수 이수학점 줄이기, 폐강 기준 완화 등에 나서면서 학생들의 수업권 침해와 고등교육의 질 하락이 우려되고 있다.

강사법에 따라 2학기부터 대학이 시간강사를 비롯한 겸임교수 임용시 공개채용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면서 강사를 제대 구하지 못한 대학들의 수강신청에도 비상이 걸렸다.

강사단체들은 대학들이 편법을 동원해 강사들을 대량 해고하고 있다고 비판하지만, 지난 11년간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하면서 재정난에 시달리는 대학들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도 강사법 시행으로 발생하는 대학의 재정 부담 경감을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할 방침이지만, 학생인구 감소에 따라 교육재정은 축소가 불가피해 대학법정 등록금 인상 요구가 커지고 있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 ‘사드의 눈물’ 마르기도 전에, 반일불매 유탄 동북아 패권다툼 희생양 된 롯데

한일 경제전쟁에 반일감정 확산  
롯데그룹 국적 논란 또 수면위로

중국 정부의 사드 보복으로 현지 사업에 타격을 입은 롯데가 이번에는 일본 경제보복으로 일본제품 불매운동의 중심에 서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아울러 일본에서는 롯데가 한국 기업이라는 명목에 내세워 불매운동을 전개하려는 움직임마저 일고 있어 ‘삼중고’ 위기에 놓여 있다. 롯데는 미·중 ‘사드’ 갈등과 한·일 무역전쟁 등 동북아 패권다툼의 희생양만 된 셈이다.

### ◆한·중·일서 삼중고

롯데그룹은 지난 2017년 중국 정부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보복으로 치명타를 입었다. 주한미군이 사드를 경북 성주 롯데 소유 골프장 부지에 배치하자 중국에서는 롯데 불매운동이 벌어졌다. 중국 관영 언론들도 ‘롯데 죽이기’에 나섰다. 중국



롯데월드타워 전경

정부는 롯데쇼핑 중국 매장 대부분을 화재 규정 위반을 이유로 들어 운영을 하지 못하게 했다. 중국에서 일어난 한국제품 불매운동 여파로 100여개가 넘는 현지 점포를 폐점했다. 화동·화북 법인을 현지 기업에 매각했다. 지난 3월 롯데는 중국 식품제조업 시장에서 철수를 결정했다.

사드 보복으로 인한 피해규모를 롯데가 직접 밝히고 있지 않지만 재계에 선 직접적인 매출 감소, 사업기회 손실 등으로 인한 유무형의 피해까지 합쳐 3조원 이상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사드 배치와 이번 한일관계 악화 국면은 정치, 외교적인 일인데 그 과정에서 롯데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는 따져봐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당시 국민들은 한국 기업으로써 국가 안보를 위해 협조한 이유로 치명적 피해를 보고 있는 롯데그룹을 지지하고 진정한 한국기업이라는 위로까지 건네기도 했다. 심지어 ‘롯데 구매운동’ 움직임까지 있었다.

최근에는 일본이 수출절차간소화우대국 명단을 뜻하는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면서 반일 감정이 확산하고 있다. <3면에 계속>

/박민용 기자 parkiu7854@



### 분양가 상한제 개선안 오늘 발표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개선안 발표를 하루 앞둔 11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일대의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정부가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을 대신해 가격 결정에 개입하는 이번 조치가 미중 관세 갈등, 한일 무역 분쟁 등 고리를 무는 대외약재 속에 경제 여건이 뒷걸음질하는 국내 아파트 시장의 대세 하락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지, 공급감소 등 더 큰 부작용을 예비하는 악수가 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관련기사 2면>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개선안 발표를 하루 앞둔 11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일대의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정부가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을 대신해 가격 결정에 개입하는 이번 조치가 미중 관세 갈등, 한일 무역 분쟁 등 고리를 무는 대외약재 속에 경제 여건이 뒷걸음질하는 국내 아파트 시장의 대세 하락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지, 공급감소 등 더 큰 부작용을 예비하는 악수가 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관련기사 2면>

/뉴시스

## 이수만의 주주 무시예 이채원 뿔났다

SM, 라이크 기획 합병 등 거부에  
한투밸류 주주행동주의 준비태세  
주주 배당금도 한번도 지급 안돼

지난 6월, KB자산운용(KB운용)은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에 보낸 주주 서한을 통해 ▲배당 ▲적자사업 정리 ▲라이크 기획 합병 등을 요구했다. 한 달 반 만에 답변을 내놓은 에스엠은 모든 제안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을 뿐 사실상 거절 의사를 밝혔다. 기관투자자들은 에스엠의 답변에 대해 “이례적인 태도”라고 입을 모은다. 최소한의 성의도 보이지 않아서다. 이에 따라 ‘가치투자 1세대’로 꼽히는 이채원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한투밸류) 대표가 에스엠을 향한 두 번째 주주행동을 시작한다.



이수만  
SM엔터 회장



이채원  
한투밸류 대표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투밸류는 에스엠에 투자자 미팅을 제안한 상태다. 주주 가치 제고 방안과 관련해 기관투자자로서의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에스엠은 어떤 답변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한투밸류는 내주 중 답변이 없으면 KB운용에 이어 두 번째 주주 행동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라이크기획의 사업구조 개편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에스엠, 자신감의 원천은?

에스엠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김앤장을 통해 자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주 서한에 대한 답변까지 한 달 반의 시간을 썼지만 “구체적인 답변이 부재했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이 시간동안 에스엠은 법적 자문을 구하러 다닌 것으로 추측된다.

우선 에스엠은 라이크기획에 주는 자문료가 ‘일감 몰아주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답변서에서도 “라이크기획과 프로듀싱 계약은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과 검토를 거쳐서 글로벌 동종 업계의 사례 등을 면밀히 비교·분석한 적절한 기준으로 체결됐다”면서 “일감 몰아주기에 해당하지 않고 기타 법률적 문제점이 없다”고 반박했다. <2면에 계속>

/손염기 기자 sonumji301@